“기본부터 실무까지 차근차근…글로벌 콘텐츠 인재 되겠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사관학교 가보니

1기생 50명 콘텐츠·웹툰 수업 교육과정 열중
8개월간 1천시간 이수 라이센스 취득 등 지원

18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웹툰 분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현지 기자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쌓아 글로벌 콘텐츠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18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GCC사관학교 1기생 50명이 두 곳의 강의실에서 실감콘텐츠 수업과 웹툰 수업을 받고 있었다.

실감콘텐츠 분야 카메라 시각효과(ICVFX) 3D콘텐츠 레벨 디자이너 양성과정 학생들은 줄지어 늘어선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쳐다보며 화면에 집중했다.

이날 수업 내용은 3D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블렌더(Blender·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곡선의 패턴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점을 움직여 패턴을 그려보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는지 ‘아’ 하는 탄성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또 보조 강사가 학생들의 모니터를 보며 도움을 주며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학생들은 아직은 미숙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약간 각진 곡선이 그려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 패턴을 완성했다.

박모(24)학생은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3D에 관련된 정보나 교육 전문과정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광주에서도 이 같은 과정이 생겨 꼭 참여하고 싶었다”며 “다양한 사람들과 몰랐던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대규모 용량 탓에 집에서 작업이 어려웠던 부분도 강의실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웹툰 수업은 남·녀 연령대별 얼굴을 그려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림 그리기는 웹툰제작의 기본이 되는 만큼 학생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먼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노화에 따른 특징이나 표현을 배운 다음 각자의 태블릿 PC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자 참고할 만한 연령대의 사진이나 그림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며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 등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김모(24)학생은 “만화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한 전공자이지만 좋은 시설에서 더 배워볼 수 있겠다는 생각과 관련 분야 취업이 연계된다는 것을 기회라고 여겨 지원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천천히 알려주고 피드백 등도 즉각적으로 이뤄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입교식 후 본격 운영에 돌입한 GCC 사관학교에서는 총 173명의 1기생들이 글로벌 콘텐츠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 교육이 이뤄진다.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약 1천시간을 이수하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 등도 지원한다.

우수 수료자 50여명에게는 산학연계 기업프로젝트(인턴십) 해외연수 과정도 추진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초부터 실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육 과정인 만큼 수료 후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모든 분야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기자

중소건설사 안전보건역량 강화

건설협회 전남도회·광주시회, 중대재해법 경향·사례 등 교육 성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마찬호)와 광주시회(회장 김명기)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중소건설기업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은 회원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주제로 안전보건공단 문정범 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을 주관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광주시회는 교육 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사례집 배포, 대응매뉴얼 제공,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달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궐기대회에 참석해 지역 건설업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광주시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건설기업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회원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전통문화 연구 ‘지역공예산업 활성화’ 맞손

광주디자인진흥원·한국전통문화전당 MOU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18일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 광주디자인진흥원 회의실에서 지역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예술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 발굴·운영 ▲디자인·전통문화분야 연구개발과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인적·물적 자원 교류·공유 ▲각 기관 사업의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미 개발된 우수공예문화상품을 각 기관이 운영하는 공예품 판매장에서 교류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지역 최대규모의 공예 박람회인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에서도 우수한 전통공예상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상호간 학술행사와 심포지엄 등에서 인적·물적으로 협력해 양 기관이 축적한 그간의 연구 성과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지기자

국민연금公 광주본부, 청년인턴 모집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은 5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112개 지사에서 근무하며 채용인원은 총 270명이다.

그 중 광주·전남은 광주지역본부 3명, 동광주지사 2명, 북광주지사 2명, 순천지사 3명, 여수지사 2명, 나주지사 2명, 목포지사 2명, 해남지사 2명으로 총 18명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근무기간 우수 근무자는 우수 수료증 발급과 3개월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김현지기자